

1793년에 보급한 『호남읍지』 유형과 전라도의 읍지*

이재두**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1793년 『호남읍지』 유형의 의의 |
| 2. 『호남읍지』와 『각도읍지』 전라도편 | 6. 맺음말 |
| 3. 1793년에 편찬한 전라도 읍지 | 참고문헌 |
| 4. 전주부와 장흥부의 1793년지 추적 | <Abstract> |

국문초록

1792년(정조 16) 말부터 1793년(정조 17)까지 전라도에서는 정조와 승정원의 지시로 전라도 도사 권방(1740~1808)이 주도하여 읍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라감영에서는 ‘영남규모’에 따라 『호남읍지』 유형을 개발·보급하여 정해진 형식대로 읍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영남규모는 1786년(정조 10) 경상도 읍지 편찬 사업에서 적용한 전형적인 『여지도서』 보완유형(『경상도읍지』 유형)이나 『여지도서』 증보유형이 아니었다. 전라감영에서 읍지 표준양식으로 참고한 것은 경상도 각 고을 읍지 중에서도 『안동부여지지』였다. 『안동부여지지』는 『여지도서』 경상도편의 수록항목을 바탕으로 『여지도서』 보완유형의 수록항목을 반영한 특이한 형태였다.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읍지』(『각도읍지』)를 보면, 전라도 56개 고을 가운데 54개 고을에서 1793년에 편찬한 동일한 유형의 읍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주부와 장흥부는 1793년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각도읍지』 전주부가 1832년에 편찬한 것이지만 『호남읍지』 유형인 것을 보면, 전주부에서도 다른 고을처럼 1793년에 『호남읍지』 유형의 읍지를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 이 논문은 2021년 8월 취득 예정인 필자의 문학박사 학위논문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 영남고등학교 교사, E-mail: 2sigory@daum.net

나 『각도읍지』 장흥부(1832)는 『호남읍지』 유형이 아니라, 유형 분류가 곤란한 ‘예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읍지는 1793년 편찬한 『장흥지』의 권말에 3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장흥부는 다른 고읍과 달리, 유일하게 『호남읍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1793년에 편찬한 전라도 각 고읍의 읍지는 18세기 말 정조 재위기 전라도 각 고읍이나, 전라도 전체를 연구하고자 할 때 기본이 되어야 할 자료이다. 한 고읍을 제외하고는 수록항목이 일치하므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邑誌, 『湖南邑誌』, 『各道邑誌』, 『湖南邑誌』 類型, 權訪

1. 머리말

조선후기의 읍지는 오늘날 시·군·구의 지방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00년 이후 편찬한 지방지들은 시민을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이하게 서술하면서 사진과 지도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시·군·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미래비전을 제안하고 있으며,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¹⁾

최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1793년(정조 17)에 편찬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여산부·함열현·용안현의 후사본(後寫本) 읍지를 번역하여 영인본과 함께 출판하였다.²⁾ 영인 대상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으로 선정하고, 1914년 위의 3개 군과 함께 익산군으로 통합된 ‘익산군’의 1793년지도 함께 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³⁾ 규장각의 후사본 읍지들은 대부분 장당 24행×24자로 통일하였지만, 인찰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하나같이 지도가 없다. 1910년대 초반 총독부 참서관실에서 원본을 베껴 정본화한 후사본이기 때문이다.⁴⁾ 규장각의 후사본과 동일한 내용을 다수 수록하고 있는 개인소장본 『호남읍지』(1793)와 2011년에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의 『읍지』 전라도편의 각

1) 박미선, 2019, 「시·군지 편찬 현황과 구성상의 특징 - 2000년 이후 전라남도 시·군지를 중심으로」, 『호남학』 6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15쪽.

2) 이의강 외 역, 2020, 『여산·함열·용안읍지』, 익산시.

3) 이하 편찬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시기 읍지를 1793년지, 1832년지, 1899년지 등으로 표시한다.

4) 이재두, 2020a, 「규장각 일부 후사본 읍지와 이마니시문고의 관계」, 『한국민족문화』 74.

고을 읍지는 모두 첫 장에 지도를 실었으며, 인찰지에 장당 24행×20자(혹은 22자, 24자)로 정서한 선본이다.⁵⁾

1792년(정조 16) 8월 정조는 이순신의 배향처를 읍지에서 확인하지 못하게 되자, 전라감사에게 다시 읍지를 수정해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⁶⁾ 당시 이 자리에서 우부승지 이면웅(李冕膺)은 자신의 부친인 수원유수 이명식이 경상감사였을 때 읍지를 바로 잡은 사실을 언급하였다.⁷⁾ 이에 정조는 전라감사에게 영남의 예에 따라 읍지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792년 말 전라도에서는 승정원절목에서 규정한 ‘영남규모’에 따라 『호남읍지』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승정원절목은 전라도의 읍지 편찬을 위해 하달한 규정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이서구(李書九)가 9월에 승지로 복귀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선,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와 국립고궁박물관 『각도읍지』 전라도편의 편찬 시기와 읍지 유형을 확인한다. 이어서 개인소장본 『호남읍지』 가운데 분실한 6개 고을과 『호남읍지』 유형이 아닌 9개 고을에서 1793년에 편찬한 『호남읍지』 유형을 『각도읍지』에서 확인한다. 『각도읍지』에서 1793년지를 확인할 수 없는 2개 고을인 전주부와 장흥부는 『각도읍지』 1832년지와 다른 기관에서 소장한 읍지들을 참고하여 이 두 고을의 1793년지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호남읍지』 유형이 갖는 의의와 이후의 과제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하여 『호남읍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18세기 말 중앙정부에서 파악하고자 전라도 각 고을의 현황은 물론, 전라도 사족들이 만들고자 한 전라도 이미지, 혹은 지역 정체성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5) 이재두, 2018, 「1793년 『호남읍지』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문화』 84; 이재두, 2020c, 「2011년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 『읍지』 74책의 유래와 특징」, 『조선후기시대사학보』 94.

6)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8월 19일 을유 “上曰 忠武公同享處 果考出於邑誌耶. (左承旨) 濟遠曰 邑誌中未免見漏矣. 上曰 我國邑誌 可謂不成說矣. (右副承旨李)冕膺曰 臣父曾在嶺南時 以其邑誌之多有沒實 竝皆釐改矣. 上曰 完伯雖以民事 撓汨無暇 而依嶺南例 從近釐改之意 言及 可也”(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51~152쪽)

7) 1771년(영조 47) 『경상도읍지』는 1768년 홍문관의 지시에 따라 경상감사 이은이 시작한 것이다. 1768년 홍문관은 『여지도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보급하였다. 이은부터 이명식까지 경상감사와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李濂(1767.11.26.~69.2.14), 金漢蒼(1769.2.16.~11.5), 李瀾(1769.11.5.~71.5.6), 李命植(1771.1.6.~11.10). 설석규 외, 2005, 『증보경상도선생안 상』, 한국국학진흥원, 770~774쪽.

2. 『호남읍지』와 『각도읍지』 전라도편

1) 1792년 말 전라감영의 전라도 읍지 편찬

1788년(정조 12) 5월 홍덕현에서는 향론을 묻지도 않고 1786년에 이어 구지(舊志)를 베껴 올릴 예정이었다.⁸⁾ 이에 앞서 고한성(高漢聖)은 향론을 바탕으로 홍덕현의 새로운 읍지[新誌]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황윤석은 홍덕현의 공론이 이미 30년 전에 무너졌으며, 읍지 편찬자는 고을 유력자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대로 기록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런 읍지는 조상에게나 후손에게 모두 폐만 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읍지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읍지에 실린 사람은 영예롭게 되고 삭제된 자도 두려움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⁹⁾ 30년 전은 영조대 읍지수집령에 따라 1758년지를 편찬할 무렵이다. 그 뒤 홍문관의 인물 수록규정이 강화되면서, 『여지도서』 계통 등에서 보듯이 향론만으로 읍지에 인물을 추가하는 것이 곤란해진 상황을 반영한 듯하다.

그동안 1793년에 편찬한 『호남읍지』는 모두 11책으로 성책한 개인소장본만 알려져 있었으며, 이 도지(道誌)는 한 책을 분실하여 10책만 남아있었다. 현재 원본의 이미지 파일(JPEG, PDF본)이나 복사본(전북대, 충남대)은 남아 있지만, 원본인 개인소장본의 행방은 알 수 없다. PDF본의 제2책과 제3책의 순서를 바꾸면, 대체로 『대전통편』 이전(吏典) 외관직 전라도의 고을별 수록순서대로이다.¹⁰⁾ 이 도지를 보면, 1793년 전라감영에서는 새로운 항목 수록 규정을 적용한 ‘『호남읍지』 유형’을 개발·보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나 『여지도서』 보완유형(『경상도읍지』 유형)과 구분되는 새로운 유형이다.¹¹⁾

8) 『이재난고』 1788년 5월 16일 정축 “李士則來 聞 奎章閣關文 令各道各邑 更修邑誌上送 而本邑只謄舊志云”

9) 『이재난고』 1788년 5월 27일 무자 “高君漢聖通甫初十書來 自邑中便 高君書言 奎章閣關來 方命修上堂志 而一鄉先輩言行可續者多 又各堂並刊 而吾邑獨未誠一可慨 因要我倡導 高君此言誠好矣 奈彼一種誣先之徒 抵死沮戲 不欲公論 筆削何哉”, 5월 28일 기축 答高通甫 “...顧吾鄉非無屋下公議 而無復筆端公議 駸駸三十餘年矣...顧瞻豪富 不獨上謔古人 亦且下誣來世 雖續雖刊 何用之有大槩 此弊無舊無新 必其可改者改之 可沿者沿之 可增者增之 可拔者拔之 然後得錄者爲榮 被削者知懼 ...”(배우성, 2015, 앞의 책, 322쪽 참고)

10) 이재두, 2018, 앞의 논문, 258쪽 주 12.

11) 필자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들에서 관찬읍지를 유형화하면서 『여지승람』+a 유형, 『경상도읍지』 유형, 『여지도서』+a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위논문 심사 과정에서 『경상도읍지』 유형은 1832년 경상도 道誌의 형식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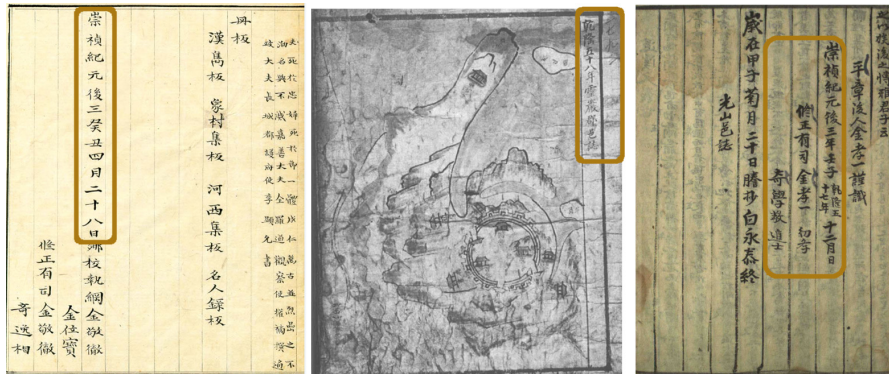


그림 1. 『호남읍지』(1793) 4-1책 장성부(좌), 『영암군읍지』(중), 『광산읍지』(우)

<그림 1> 개인소장본 『호남읍지』 장성부의 말미 ‘승정기원후삼계축’과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영암군읍지』의 지도 오른쪽에 기록한 ‘건륭 58년’은 1793년에 해당한다.¹²⁾ 『광산읍지』는 1792년 12월에 편찬한 것을 1804년(순조 4)에 베낀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1792년 말부터 전라도 각 고을에서 추진한 읍지 편찬 사실을 입증해 준다.

당시 전라감영에서는 1786년이나 1789년 경상도에서 편찬한 읍지를 바탕으로 『경상도읍지』와 같은 도지(道誌)를 편찬하고자 하였다.¹³⁾ 물론 전라도에서도 1786년, 1788년, 1789년 등 여러 차례 도지를 편찬하였지만, 경상도처럼 일정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구지(舊誌)를 그대로 베껴 올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라감영에서 영남규모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보급한 읍지의 표준양식은 『안동부여지지』 수록항목을 기준으로 수록순서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었다. 『안동부여지지』는 경상도 각 고을 읍지에 적용한 전형적인 『여지도서』 보완유형이나 『여지도서』 증보유형은 아니었다.

『호남읍지』 유형은 전라도 도사 권방(權訪, 1740~1808)이 『안동부여지지』를

점에서 문제가 있고, +a(플러스알파)라는 표현도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수용하여 각각 『여지승람』 증보유형, 『여지도서』 보완유형, 『여지도서』 증보유형으로 변경한다. 『여지도서』 유형은 1760년, 『여지도서』 보완유형은 1768년, 『여지도서』 증보유형은 1775년, 『호남읍지』 유형은 1793년에 중앙정부나 지방감영에서 보급한 수록규정에 따라 편찬한 읍지를 일컫는다.

12) 『靈巖郡邑誌』(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16BB-0028a) “乾隆五十八年靈巖郡邑誌”; 『호남읍지』(개인소장본) 4-1책 장성부 “崇禎紀元後三癸丑四月二十八日 鄉校執綱金敬徹 / 金位寶 / 修正有司金敬徹 / 奇逸相”

13) 1786년에 편찬한 『경상도읍지』에 대해서는 이재두, 2019, 「1786년 편찬한 이마니시문고 『경상도읍지』의 분석과 그 의미」, 『동방학지』 188을 참고할 것; 『嶺南邑志』(일본 国会図書館 217-1) 16卷은 1789년에 편찬한 도지이다.

바탕으로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보급하였으며,¹⁴⁾ 권방이 체직된 뒤 전라감사로 부임한 이서구(李書九, 1754~1825)가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1793년(정조 17)에 편찬한 『호남읍지』는 정조가 편찬하고자 한 『해동여지통재』의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동여지통재』의 일부였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다른 고을에서는 동일한 유형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해동여지통재』 계열’보다는 『호남읍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호남읍지』 유형의 목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¹⁵⁾

‘지도, ①건치연혁, ②군명, ③관직, ④방리, ⑤도로, ⑥성지, ⑦산천, ⑧성씨, ⑨풍속, ⑩학교, ⑪서원, ⑫단묘, ⑬공해, ⑭관애, ⑮진보, ⑯봉수, ⑰제언, ⑱장시, ⑲교량, ⑳역원, ㉑목장, ㉒사찰, ㉓누정(부 제영), ㉔형승, ㉕도서, ㉖물산, ㉗진공, ㉘상납, ㉙호구, ㉚전충, ㉛전세, ㉜대동, ㉝군세, ㉞봉름, ㉟요역, ㊱창고, ㊲조적, ㊳군기, ㊴군액, ㊵노비, ㊶선생안, ㊷인물, ㊸과환, ㊹고적, ㊺책판

『호남읍지』 유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대체할 전국읍지로 정조의 『해동여지통재』의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읍지』 유형은 제영을 ㉓누정에 부기하였지만, 비문을 배제하여 『여지도서』 보완유형보다는 사실에 충실하였으며 실용적이었다.

『여지도서』 수록항목에서 장시, 도서, 상납, 요역, 군기, 노비, 선생안, 과환, 책판 9개 항목을 신설하였다. 상납과 노비 항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환에는 문과만이 아니라, 무과·음사·생진·행의 관련 인물을 모두 수록하였다. 고을의 행정과 재정 정보만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조치였다.¹⁶⁾

1793년에 편찬한 『호남읍지』에는 부세 수취와 군액 확보와 관련된 항목들이 많다. 이 항목들은 1794년(정조 18)에 편찬한 『부역실총(賦役實摠)]이나 『

14) 『승정원일기』 16년 6월 22일 기축 “以 … 權訪爲全羅都事”; 권방은 李象靖의 문인으로 1783년(44세, 정조 7) 증광문과에 합격하여 승문원 부정자가 되었으며, 1792년(53세) 사헌부 감찰로 있으면서, 장헌세자(사도세자)의 신원을 위하여 李瑀 등이 주도한 영남 만인소에 참여하여 통문을 돌리는 등 京鄕을 회합하고 疏事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해 6월 전라도 도사가 되었으며, 1793년 6월 병조 좌랑이 되었으나 체직되어 이후 안동에 은거하였다. 1807년(68세, 순조 7) 6월 다시 전라도 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다음 해에 사망하였다. 『鶴林先生續集』 卷2 附錄 行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15) 이재두, 2018, 앞의 논문, 268쪽.

16) 자세한 내용은 이재두, 2020b, 『정조대의 전국읍지 편찬 사업 재검토』, 『한국사연구』 189, 138~143쪽; 이재두, 2020c, 앞의 논문, 397쪽.

군국총목(軍國總目)』의 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부역실총(賦役實總)』은 재정 운영에서 정치권력과 사적·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이나 기구의 독자적인 재정권을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호조·선혜청·군역청 등 중앙 재무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군국총목』은 병농일치적 군제 운영을 이상으로 하면서도 역총과 곡총 등 직접적인 군비·군제 운영 관련 항목을 근간으로 그 재원의 근거로서 호구와 토지에 대한 파악을 병행하고 있었다.¹⁷⁾

그런데 개인소장본 가운데 분실한 읍지나 『호남읍지』 유형이 아닌 읍지들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읍지』(이하 『각도읍지』) 전라도편에서 『호남읍지』 유형의 완성본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다만, 전주부와 장흥부는 1832년에 편찬한 읍지이기 때문에 1793년에 편찬한 읍지가 어떠한 형태였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1832년에 편찬한 『각도읍지』 전주부가 『호남읍지』 유형이고, 장흥부가 예외 유형인 것을 보면, 1793년 당시 많아야 장흥부 1개 고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을이 『호남읍지』 유형의 읍지를 완성하여 상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도지에 수록된 두 고을의 읍지는 장당 24행×20자나 24행×24자씩 정서한 선본(善本)이다. 붉은색 인찰정간에 필사한 『각도읍지』는 1793년에 제작한 원본이다. 검은색 인찰정간을 사용한 개인소장본은 중앙으로 상송하고 난 뒤 1793년지를 중심으로 재필사한 것이다. 제1·2·3책에 수록한 고을에는 재필사할 당시에 『호남읍지』 유형의 1793년지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1793년 이전에 편찬한 읍지를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부표>는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와 『각도읍지』 수록 읍지의 권차와 편찬시기로 『대전통편』(1785) 이전 외관직 전라도의 고을별 순서에 따라 두 읍지를 대조한 것이다.

17) 송양섭, 2008, 「『부역실총』에 나타난 재원파악 방식과 재정정책」, 『역사와 현실』 70, 50~51쪽; 송양섭, 2011, 「正祖代 『軍國總目』의 체제와 군비·군사재정의 파악」, 『사림』 38, 101~102쪽.

18) 100여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의 『읍지』는 1878년지인 경상도편을 제외하면 1832년(순조 32)에 전질을 완성한 『각도읍지』이며, 1899년에는 분실하였거나 신설한 군의 읍지를 보충한 보유편을 편찬하였다. 『각도읍지』 경상도편은 규장각의 『경상도읍지』(규666) 20책이다. 이재두, 2020b, 앞의 논문, 112쪽; 이재두, 2020c, 앞의 논문, 377~4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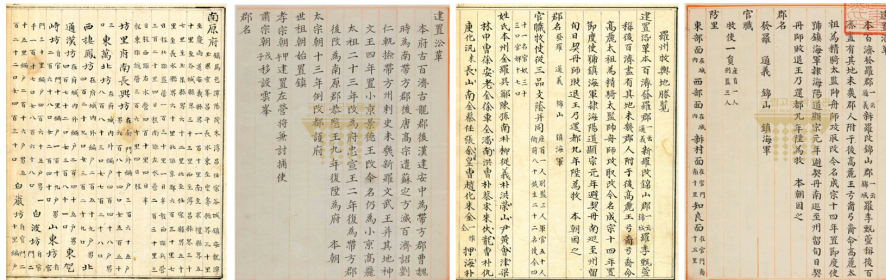


그림 2. 남원부(좌)와 나주목(우)의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와 『각도읍지』

2) 『호남읍지』와 『각도읍지』 전라도편의 구성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와 『각도읍지』에 수록한 남원부와 나주목의 읍지는 <그림 2>에서 보듯이 두 고을 모두 각각 다른 유형의 읍지이다. 개인소장본 『호남읍지』 전라감영(1-1), 전주부(1-2), 남원부(2-1), 장흥부(2-2), 순천부(2-3)는 1788년(정조 12)에 편찬한 읍지를 재필사한 것으로 모두 선생안(환적)을 싣고 있다.¹⁹⁾ 전주부는 『여지도서』 보완유형이고, 남원부와 장흥부는 『여지도서』 증보유형이며, 순천부는 사찬읍지를 베꼈다. 남원부와 순천부의 호구는 1786년(병오) 통계이고, 장흥부는 『호구총수』(1789)의 수치보다 18호가 더 많다. 전주부 환적은 『여지승람』의 명환을 그대로 베낀 것이며, 권말의 제영에는 많은 시문이 실려 있다. 관안에는 판관 조장진이 1780년에 부임한 사실까지이며, 생진은 1783년(정조 7) 식년시에서 진사가 된 이형팔(李馨八)까지이다. 열녀 사비 금옥(金玉), 이씨, 조씨, 김씨, 국성(鞠姓), 이씨는 각각 1743년, 1741년, 1736년, 1773년, 1759년, 1760년에 정려되었는데, 모두 영조를 금상(今上)으로 기재하였으며, 효자도 영조 때 정려 받은 인물은 금상으로 기재하였다. 영조 말에 보급한 『여지도서』 보완유형을 적용하여 1768년경에 편찬한 읍지가 저본이었기 때문이다. 전주부는 방리 다음에 원호 20,947호만을 기재하였는데 『호구총수』와 동일한 수치이며, 전체 인구나 남녀 인구는 기재하지 않고 한 줄을 비워두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라감영지』는 호구가 1789년 기유식이며, 1790년 민태혁(閔台爌) 재임 당시에 편찬한 읍지이다.²⁰⁾ 선생안의 마지막에는 민태혁

19) 이재두, 2018, 앞의 논문, 265~267쪽.

20) 『全羅監營誌』(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62-8) 장당 24행×22자 33장인데, 장당 24행×22자 16장인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에 실린 1788년지에 비하여 분량이 두 배 정도이다. 한편, 『전라감영지』 호구는 ‘己酉式 元戶 308,408戶, 人口 1,155,386口’인데, 1789년의

이 1789년 12월에 전라감사로 부임한 사실까지 나오는데, 1790년 4월 29일 파직되었다.²¹⁾ 1788년 편찬한 개인소장본 『호남읍지』 전라감영(1-1)과 비교해 보면, 역원과 목장 및 환적의 도사와 중영장 명단을 생략하였고, 지도·성지·궁실·누대·고적·제영·봉림·책판·선척을 추가하면서 내용이 충실해졌다.²²⁾ 대부분의 시문은 개인소장본 『호남읍지』 전주부(1-2) 1788년지에 실린 것들로, 1790년 당시 감영지와 전주부읍지 사이에 항목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의 호구나 선생안을 보면 나주목(1-3), 광주목(3-1), 능주목(3-2), 홍양현(3-3), 무안현(3-4)의 읍지도 1790년지를 재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주목만 『여지도서』 보완유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지도서』 증보유형이다.²³⁾

개인소장본 『호남읍지』는 전라감영에서 전라도 56개 고을의 읍지를 재필사하여 완질을 갖춘 것이다. 재필사 작업 당시 47개 고을은 『호남읍지』 유형인 1793년지를 저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9개 고을은 1793년지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시기에 편찬한 읍지를 저본으로 하여 호구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각도읍지』 제25책부터 제36책까지 모두 12책은 전라도편이며, 1793년·1832년·1899년에 편찬한 읍지가 섞여 있다. 호구 식년이나 읍지 선생안 마지막에 실린 지방관의 부임 시기를 고려하면, 8책 48개 읍지(법성진 포함)는 1793년에 편찬한 『호남읍지』 유형이다. 제32책의 순천부는 전영진(前營鎭)·좌수영진·방답진(防踏鎭)·고돌산진(古突山鎭)·곡화목(曲華牧)의 읍지를 포함하고 있다.

9개 고을은 1832년(순조 32)에 편찬한 읍지인데, 제26책 제주목·대정현·정의현, 제27책 전주부(완산지 상·하), 제33책 장흥부·담양부·장성부·무주부·여산부이다. 제36책 여수군·지도군·완도군·돌산군은 1896년과 1897년에 신설한 군으로, 1899년(고종 36, 광무 3)에 편찬한 읍지이다. 1832년지인 제주목·대정현·정의현·전주부·여산부는 『호남읍지』 유형이고, 담양부·장성부·무주부는 『여지도서』 증보유형이다. 장흥부 1832년지와 신설한 4개

통계를 반영한 『호구총수』에는 ‘元戶 319,160, 口 1,220,804’로 기재되어 있어 호구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21) 『각도읍지』 「완산지」(27) 권하 환적.

22) 1788년지의 수록항목은 강역, 건치연혁, 관직, 호구, 전부, 군병, 공해, 창고, 역원, 목장, 진공, 방물, 조적, 환적 순이다. 『호남읍지』(개인소장본) 「전라도」(1-1).

23) 이재두, 2018c, 「1793년 『호남읍지』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문화』 8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65~267쪽.

군의 1899년 보유편은 유형분류가 곤란한 예외 유형이다.

<표 1>은 『각도읍지』 전라도편의 책별 분량과 수록 고을, 편찬 시기 및 읍지 유형이다.

표 1. 『각도읍지』 전라도편의 서지 정보

순서 (책)	분량 (면)	고을개 수	수록 고을	편찬시기 (년)
25	204	6	영광군, 법성진 , 영암군, 익산군, 금산군, 홍덕현	1793
26	108	3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1832
27	220	1	전주부(완산지 상·하)	
28	256	10	옥과현, 화순현, 남평현, 동복현, 구례현, 임피현, 금구현, 만경현, 용담현, 창평현	1793
29	182	4	광양현, 홍양현, 강진현, 해남현	
30	254	10	고산현, 무장현, 함열현, 용안현, 옥구현, 운봉현, 진안현, 임실현, 장수현, 곡성현	
31	174	3	나주목, 광주목, 능주목	
32	202	2	순천부(前營鎮・左水營鎮・防踏鎮・古突山鎮・曲華牧의 읍지 포함), 남원부	
33	184	5	장흥부(예) 담양부(여중) 장성부(여중) 무주부(여중) 여산부	1832
34	198	6	부안현, 태인현, 정읍현, 진산현, 고부군, 진도군	1793
35	236	7	순창군, 김제군, 보성군, 낙안군, 고창현, 함평현, 무안현	
36	160	4	여수군(예) 지도군(예) 완도군(예) 돌산군(예)	1899
합계	2378	61	*(여중) 3개 고을은 『여지도서』 증보유형, (예) 5개 고을은 분류가 곤란한 예외 유형이다. 나머지 53개 고을(법성진 포함)은 『호남읍지』 유형이다.	

3. 1793년에 편찬한 전라도 읍지

1) 분실한 개인소장본 6개 읍지

『각도읍지』에서는 개인소장본에서 분실한 6개 고을과 『호남읍지』 유형이 아니었던 9개 고을 가운데 7개 고을에서 1793년에 편찬한 『호남읍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에는 6개 고을을 수록한 한 책이 분실 상태이다. 규장각에서는 진안현·동복현·해남현의 『호남읍지』 유형 17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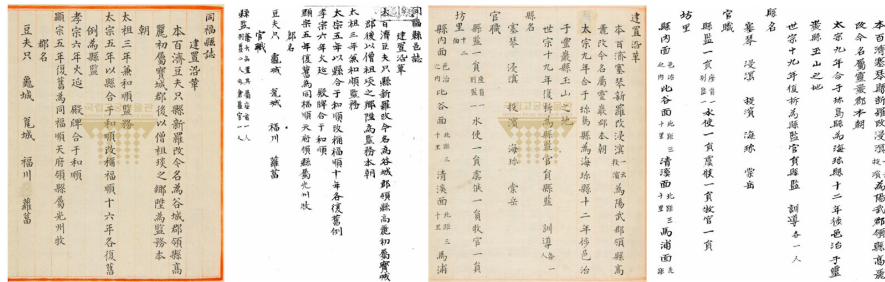


그림 3. 동북현(좌)과 해남현(우)의 『각도읍지』와 규장각 후사본

지의 후사본을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의 세 읍지는 『각도읍지』 수록 읍지와 거의 같은 종류의 읍지를 참고하였으며, 모두 지도를 생략하였다.²⁴⁾ <그림 3>처럼 『각도읍지』의 동북현과 해남현은 규장각의 후사본 읍지의 원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다.

『각도읍지』에는 여섯 고을 모두 1789년의 호구통계인 『호구총수』의 수치와 다르고, 동북현이 1792년(임자) 수치이며, 해남현이 1792년의 통계를 반영하고 있는 『군국총목』의 수치와 일치한다. 부임 시기만 실린 임실현감 이윤서(李潤瑞)가 1790년 7월에 부임하여 1793년 6월 교체된 점을 고려하면,²⁵⁾ 임실현의 읍지는 이윤서 재임 중에 편찬한 것이다. 나머지는 읍지 편찬 사업 이전에 재임했던 현감들이다.

<표 2>는 국립고궁박물관의 『각도읍지』와 규장각 후사본에 수록한 6개 고을의 호수와 마지막 지방관의 재임 시기를 표시한 것이다.

후사본인 규장각의 『진안현읍지』는 내제가 진안현읍지이고, 마지막 항목이 책판(무)이나, 『각도읍지』는 지도 오른쪽 상단에 진안현읍지를 표시하면서 첫 장에는 내제 없이 건치연혁부터 수록하였으며, 책판은 없다.

규장각의 『동북현읍지』는 내제 동북현지를 동북현읍지로 변경하였으며, 수록순서와 일부 내용을 왜곡시켰다. 제본과정의 실수로 저본의 앞·뒷장 순서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인지, 후사본은 ②진공에 이어 ④인물·④과환·④고적을 실은 뒤, ⑧상납부터 ⑪선생안까지를 수록하였다. 규장각의 후사본은 선생안도 1584년 7월부터 1585년 정월까지 재임한 정구까지만 싣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다. 『각도읍지』 동북현지는 『호남읍지』 유형의 수록순서대로이다. 선생

24) 『鎭安縣邑誌』(규17406), 『同福縣邑誌』(규17432), 『海南邑誌』(想白古915.14-H118, 옥과·남평·화순·장평 합철).

25) 『호남읍지』(규12175) 3-2 「임실현읍지」 선생안, 『승정원일기』 정조 14년(1790) 6월 17일 병인 “李潤瑞爲任實縣監”, 정조 17년(1793) 6월 2일 계해 “洪履簡爲任實縣監.”

표 2. 분실한 6개 고을의 『각도읍지』와 규장각 후사본 읍지 수록 내용 일부

고을	국립고궁박물관 『각도읍지』		규장각의 후사본		호구 총수	국립고궁박물관 『각도읍지』		규장각의 후사본	
	호수	성책 순서	호수	군국 총목		마지막 지방관	재임시기	마지막 지방관	재임시기
임실현	6,418호	30-8			6,408호	이윤서	1790~		
장수현	4,169호	30-9			4,166호	이상정	1786~1790		
진안현	5,767호	30-7	5,767호		5,765호	윤영희	1791~1791	윤영희	1791~1791
동북현	2,156호 (입자)	28-4	2,156호 (입자)		2,154호	유한순	1789~1791	정구	1584~1585
화순현	1,766호	28-2			1,765호	엄사운	1789~1790		
해남현	5,978호	29-4	5,978호	5,978호	5,974호	이응복	1791~1791	이응복	1791~1791

안의 마지막 인물은 유한순이며, 1789년 7월부터 1791년 12월까지 재임하였다. 무엇보다도 『각도읍지』는 본문 안에서 국왕이 나오는 경우에는 첫 행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첫 행을 비웠는데, 후사본은 그러한 구분을 무시하였다.

『각도읍지』를 보면, 임실현은 서원·진보·목장·도서, 장수현은 진보·목장·도서, 진안현은 서원·진보·목장·도서·책판, 동북현은 성지·진보·목장·도서·책판, 화순현은 진보·목장·형승·도서, 해남현은 진보를 생략하였다. 장수현은 선생안과 과환을 읍선생과 과관으로, 화순현은 서원과 누정을 사우와 누정제영으로, 해남현은 군명과 서원을 현명과 사우로 변경하였다.

2) 다른 유형인 개인소장본 7개 읍지

개인소장본의 권1부터 권3에는 크게 세 유형의 읍지를 수록하고 있다. 1768년(영조 44)에 『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모든 항목을 수록하면서 일부 항목을 추가한 『여지도서』 보완유형, 1775년(영조 51) 을미년에 『여지도서』 유형에 선생안과 책판을 추가하고 누정에 제영을 부기한 『여지도서』 증보유형, 사찬읍지가 그것이다.²⁶⁾ 18세기 말 정조대에 추진한 전국 읍지 편찬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각도읍지』를 보면, 이들 9개 고을 중 7개는 1793년에 편찬한 『호남읍지』 유형이다. 이러한 사실은 1793년 전라도 읍지 편찬 사업 당시 항목 수록 규정이 모든 고을에 적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 3>은 『호남읍지』 유형이 아닌 개인소장본 9개 읍지와 『각도읍지』 해당 고을 9개 읍지의 호수와 마지막 지방관 재임 시기를 표시한 것이다.

26) 이재두, 2018, 앞의 논문, 265~266쪽.

표 3. 『호남읍지』 유형이 아닌 개인소장본 9개 고읍과 『각도읍지』 비교

고읍	개인소장본 『호남읍지』		국립고궁 박물관 『각도읍지』		군국 총목	호구 총수	개인소장본 『호남읍지』		국립고궁 박물관 『각도읍지』	
	호수	성책 순서	호수	성책 순서			마지막 지방관	재임시기	마지막 지방관	재임시기
전주부	20,947호	1-2	17,613호	27	21,153호	20,947호	조장진	1780~	이희평	1829~
나주목	17,613호	1-3	17,613호	31-1	17,658호	17,636호	이후원	1789~1790	이우규	1790~1792
광주목	8,366호	3-1	8,378호	31-2		8,373호	김희	1790~	조연덕	1790~1792
능주목	4,918호 (기유)	3-2	4,919호	31-3		4,919호	임중원	1785~1787	이낙배	1787~1791
순천부	14,086호 (병오)	2-3	13,777호	32-1		13,669호	유한모	[1786~]	이기	1792~1792
남원부	11,107호 (병오)	2-1	11,170호	32-2		11,157호	이면기	1787~	송지경	1790~1791
장흥부	7,983호	2-2	8,012호	33-1		7,965호	윤수목	[1786~]	이희평	1829~
홍양현	10,003호	3-3	10,015호	29-2		10,015호	신광로	1790~	이성중	1792~
무안현	6,421호 (기유)	3-4	6,421호	35-7	6,421호	6,421호	이석하	[1786~]	이석하	1786~1788

<표 3>을 보면, 『각도읍지』와 개인소장본 선생안의 마지막에 실린 지방관이 일치하는 것은 무안현뿐이며, 개인소장본은 성명만 수록한데 비하여 『각도읍지』에는 재임기간(병오 7월일 도입 무신 8월일 체귀)까지 나온다. 무안현은 『각도읍지』와 개인소장본 모두 1789년의 호구이다. 『각도읍지』 홍양현의 이성중은 읍지 편찬 당시의 지방관으로 1792년 11월에 부임하여 이듬해 8월 교체되었다.²⁷⁾ 나머지는 1791년과 1792년에 교체된 인물들로 읍지 편찬 당시 지방관의 전임자이다.

개인소장본에서 『호남읍지』 유형이 아닌 9개 고읍은 『각도읍지』에 수록한 지방관들보다는 이전에 부임한 인물들이다. 개인소장본은 1793년(정조 17) 이전의 병오장적(1786, 순천부·남원부)이나 기유장적(1789, 능주목·무안현)을 바탕으로 한 읍지 편찬 사업의 결과물이다. 『각도읍지』는 능주목·홍양현·무안현이 1789년의 통계인 『호구총수』와 같고, 나주목은 개인소장본과 수치가 같으며, 광주목·순천부·남원부는 『호구총수』나 개인소장본과 수치가 다르다. 개인소장본 권2와 권3에 수록한 6개 읍지는 『여지도서』 증보유형이며, 순

27) 『승정원일기』 정조 16년(1792) 11월 15일 경술 “谷城縣監李性重, 與興陽縣監高廷憲口傳相換” 정조 17년(1793) 8월 26일 병술 “以朴宗正爲興陽縣監”

천부는 이수광이 편찬한 사찬읍지 『승평지』를 증보한 『중간승평지』(1729)를 바탕으로 하였다.²⁸⁾

『각도읍지』를 보면, 나주목은 관애, 광주목은 진보·목장·도서, 능주목은 도서, 순천부는 노비, 남원부는 진보·목장·도서, 무안현은 목장·형승을 생략하였으며, 홍양현은 생략한 항목이 없다. 나주목은 충묘·명환·제영을 추가하였고, 능주목은 능침(무)·사각(무)·태봉을 추가하고 과환을 과관으로 변경하였다. 순천부는 군명 대신 읍호라 하였고, 전영진·좌수영진·방답진·고돌산진·곡화목의 읍지를 수록하였으며, 남원부는 선생안을 부선생으로 변경하였다.

4. 전주부와 장흥부의 1793년지 추적

1) 전주부의 『호남읍지』 유형 1793년지

『각도읍지』에 실린 전주부와 장흥부의 읍지는 모두 1832년지이다. 『각도읍지』 완산지 상·하(이하 1832년지)는 『여지도서』 보완유형인 개인소장본과 달리 『호남읍지』 유형을 저본으로 1832년에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장흥부는 『호남읍지』 유형의 읍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표 4>는 전주부 주요 읍지의 수록항목을 비교한 표이다.

전주부의 1832년지는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호남읍지』 유형으로 항목 수록 순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호남읍지』 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산·단묘·사찰·선생안으로 표시하는 항목명을, 전주부의 1832년지는 토산·단사·불우·환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학교에 서원을 포함시켰다. 도로·진보·봉수·목장·도서를 생략하였고, 독립항목인 전충·전세·대동·군세를 전부의 부속항목으로 하였다. 이전 읍지에 있던 ‘강역’, 충묘, 묘전(조경묘·경기전), 고사(풍패기언·향리기언) 항목을 그대로 두었는데, 1788년 『여지도서』 보완유형의 읍지를 편찬하였던 경험의 유습이다.

규장각의 『완산지』(규12271, 이하 1905년지)는 인물의 효자 이기필과 효부 양씨가 1905년(광무 9)에 정려받은 기록으로 보아, 『각도읍지』보다 후대의 읍지이다.²⁹⁾ 저본의 일부가 훼손되었던지 건치연혁·진공·불우에서 일부 내용

28) 이재두, 2018, 앞의 논문, 265~266쪽.

표 4. 전주부 주요 읍지의 수록항목

『각도읍지』 전주부 (1832)	완산지 권상 전라도 ‘지도’(2면) 강역, ①건치연혁, ③관직, ⑦진공, ⑧상납, ⑨호구 306,457호, 전부(③전충·③전세·②대동) ⑦조적, ③군병 전주부 지도(2면), 강역, ①건치연혁, ③관직, ②군명, ⑧성씨, ⑦산천, ⑨풍속, ④형승, ⑤토산, ⑦진공, ④방리, ⑨호구, ⑨1전부(③전충·③전세·②대동·③군세), ③창고, ⑦조적, ③군역, ③군기, ③1묘전(肇慶廟·慶基殿), ⑫단사, ⑩학교(⑪서원 포함), ⑥성지, ⑬공해, ②누정(부 제영), ⑭관방, ②역원, 충묘, ②불우, ⑨교량, ⑦제언, ⑮장시, ④봉림, ⑤요역, ⑧상납, ④노비, ④고적, ④1고사(풍패기언·향리기언) 완산지 권하 ⑫인물(名臣·儒林·孝子·孝女·烈女), ⑬과환(文臣·武臣·蔭仕·生進), ④환적(선생안 판관·관찰사검부윤·도사·중군·중영장·조경묘령·경기전참봉·삼례찰방), ⑤책판
『완산지』 (1905)	완산지 권상 전주부지도(2면), ‘강역’, ①건치연혁, ③관직, ②군명, ⑧성씨, ⑦산천, ⑨풍속, ④형승, ⑤토산, ⑦진공, ④방리, ⑨호구, ⑨1전부(③전충·③전세·②대동·③군세), ③창고, ⑦조적, ③군역, ③군기, ③1묘전(肇慶廟·慶基殿), ⑫단사, ⑩학교(⑪서원 포함), ⑥성지, ⑬공해, ②누정(부 제영), ⑭관방, ②역원, 충묘, ②불우, ⑨교량, ⑦제언, ⑮장시, ④봉림, ⑤요역, ⑧상납, ④노비, ④고적, ④1고사(풍패기언·향리기언) 완산지 권하 ⑫인물(명신·효자·효녀·열녀·효부), ⑬과환(문신·무신·儒林·음사·생진)
개인소장본 전주부 (1788)	전라도 全羅道‘疆域’, ①건치연혁, 觀察使營, ③관직, ⑧호구, ⑨전부, ⑩軍兵, ②公廩, ⑬倉庫, ②역원 ③목장, ④진공, ③方物, 糶糴, ⑤宦蹟, 都事, 中營將 전주부 全州府‘地圖’, 全州府‘鎮所屬邑’, ①건치연혁, ②군명, ③관직, ②公廩, ④성씨, ⑤산천, ⑥풍속, ⑦방리, ⑧元戶, ⑨전부, 稅米, ⑩군역, ⑪성지, ⑬창고, ⑮진보, ⑮학교, ⑮단묘, ②불우, ②궁실, 肇慶廟, ②누정, ④도로, ⑤교량, ⑦제언, ⑮장시, ②역원, ③형승, ②고적, ③토산, ④진공, 貢物, ④1책판, ③봉림, ③환적, 官案, ⑦과거문과, 무과, 생진, 음사, ⑧인물명신, 충절, 명유, 효자, 효녀, 열녀, 事實, ③제영 『여지도서』 보완유형

을 누락하였으며, ‘전라도’ 부분과 환적을 생략하였다. 공해 포정루에는 관찰사 조영국의 상량문을 거의 1장 2면 가까이 실은 뒤, 조영국 현손인 관찰사 조휘림의 1859년 중수기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물의 명신에서는 이상진에 이어 탁상·김억만·김억희·김순을 추가하였다. 김억만 3형제는 1869년(금상기사)과 1870년(당저 경오년)에 증직과 포상을 받은 인물이다.³⁰⁾

1832년지는 상량문이 실려 있지 않고, 1905년지보다 관아 건물이 적게 실려 있지만, 충묘에 안사종과 송천회의 묘를 더 수록하였으며, 향리기언에 이어 호

29) 전주문화원에서는 규장각의 『완산지』가 가장 후대에 편찬한 읍지이고, 가장 풍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아, 이 읍지를 저본으로 『완산지』를 번역하고 원본을 영인하여 함께 출판하였다. 이희권, 2009, 『완산지』 완역을 마치며, 『완역 완산지』, 전주문화원.

30) 『승정원일기』 고종 6년(1869) 11월 9일 병자 “故判官金億萬 贈左承旨 故守門將金億熙 贈兵議 故僉知金順 贈兵參例兼 已上忠節卓異贈職事承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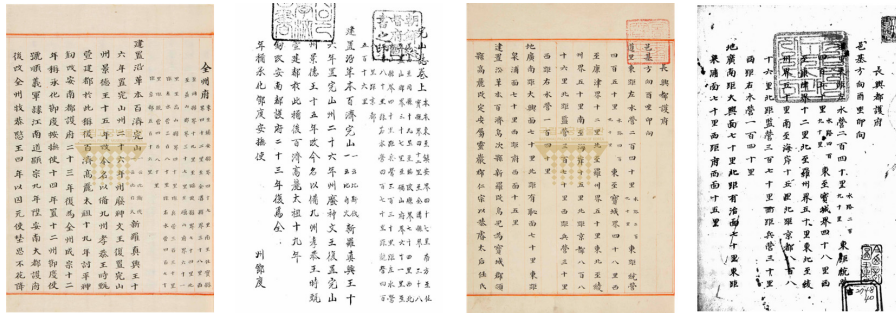


그림 4. 『각도읍지』 전주부(좌), 『완산지』(중좌), 『각도읍지』 장흥부(중우), 『장흥지』(우)

산영당기도 실고 있다. 인물의 명신은 이상진까지이다. 한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의 『호남읍지』(1847) 제1-1책은 ‘전라도읍지총록’으로 각 고을의 민호, 군총, 결총, 환총을 수록하였다. 제1-2책 전주부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강역·건치연혁·관직·군명·성씨의 일부가 빠져 있지만, 1905년지에서 추가한 내용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다.³¹⁾ 『호남읍지』(규12175, 1871) 제4-1책, 『호남읍지』(장서각 K2-4336, 1874) 제1-1책, 『호남읍지』(규12181, 1895) 제14책의 전주부의 원형도 동일한 읍지였다. 1847년지·1871년지·1874년지·1895년지·1905년지 모두 『완산지』 상·하라 하였지만, 1832년지와 달리, 전라감영지인 ‘전라도’ 부분과 환적을 생략하였다.

따라서 전주부의 1793년지는 1832년지처럼 『호남읍지』 유형으로 전라감영지에 해당하는 ‘전라도’ 부분과 환적을 수록하였을 것이다. 또한 1793년지에는 1832년지처럼 향리기언에 이어 호산영당기도 실었으며, 인물 명신은 이상진까지 수록하였겠지만, 1832년지와 달리 총묘에는 후대인물에 해당하는 안사종과 송전희의 묘는 실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장흥부의 1793년지

개인소장본 장흥부는 『여지도서』 증보유형으로 능침과 목장을 생략하고, 관직에는 선생안에 수록할 역대 지방관 명단을 실었는데, 1787년에 부임한 윤수목까지이다. 일부 항목이 수록순서를 어겼고, 읍기방향·도리·지광을 개설하여 권두에 실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장흥부지』 또한 『여지도서』 증보유형으

31)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의 『호남읍지』는 제5-2책 범성진의 내제가 “道光二十七年十一月 日法聖鎮誌”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1847년(헌종 13)에 편찬한 읍지이다.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로, 윤수묵의 후임으로 1788년에 부임한 심봉순(沈鳳淳)까지 실려 있다.³²⁾ 표지 뒷면과 권말의 기록을 보면 1789년에 배긴 읍지이다.³³⁾ 『여지도서』 증보유형의 수록 순서를 지켰으며, 개인소장본에서처럼 관직에 선생안을 포함시켰다. 개인소장본에서 생략한 능침과 목장은 물론, 개인소장본에서 추가한 읍기방향·도리·지광·봉산(封山)도 나오지 않는다.

<표 5>는 장흥부 주요 읍지의 수록항목을 비교한 표이다.

표 5. 장흥부 주요 읍지의 수록항목

『각도읍지』 장흥부 (1832)	長興府地圖, 長興都護府, 邑基方向, 道里, 地廣, 建置沿革, 郡名, 古蹟, 形勝, 風俗, 官職 (선생안 포함, 이병식 1830~), 軍校各樣員役, 軍額, 關防, 城池, 樓亭, 公廨, 倉庫, 方物進貢, 物産, 船艚, 戰兵, 封山, 軍餉, 民戶, 水軍, 水操海洋, 設陣, 軍器(付 陸軍器), 舟汙戰船, 兵船, 俠船, 搜討, 津梁, 入防軍, 異國船漂泊後舉行事例, 烽燧, 山城, 驛路, 還上, 各祠宇, 人物
『장흥지』 (1793)	장흥부지도, 장흥도호부, 읍기방향, 도리, 지광, 건치연혁, 군명, 고적, 형승, 풍속, 관직 (선생안 포함, 원영주 1790~), 군교각양원역, 군액, 관방, 성지, 누정, 공해, 창고, 방물진공, 물산, 선창, 전병, 봉산, 군향, 민호, 수군, 수조해양, 실진, 군기(부 육군기), 주변전선, 병선, 협선, 수도, 진량, 입방군, 이국선표박후거행사례, 봉수, 산성, 역로
개인소장본 장흥부 (1788)	장흥부도호부'지도', 장흥도호부, 읍기방향, 도리, 지광, ①방리, ②도로, ③건치연혁,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관직(⑦선생안 포함, 윤수묵 1787~), ⑧산천, ⑨성씨, ⑩풍속, ⑪단묘, ⑬공해, ⑭제언, ⑮창고, ⑯물산, ⑰교량, ⑱역원, ⑳진보, ㉑관에, ㉒봉수, ㉓누정·제영, ㉔사찰, ㉕고적, ㉖인물, ㉗진공, 封山, ㉘군병, ㉙冊板, ㉚한전, ㉛수전, ㉜조적, ㉝전세, ㉞대동, ㉟군세, ㊱봉림 『여지도서』 증보유형

『각도읍지』 장흥부는 1832년에 편찬한 읍지이며 유형분류가 곤란한 ‘예외 유형’이다. 1832년지는 1793년지인 이마니시문고의 『장흥지』를 저본으로 하였다.³⁴⁾ 『장흥지』는 윤수묵 옆에 군교 항목을 적은 별지를 함께 제본하였는데, 원래는 윤수묵 뒤에 심봉순·원영주까지 추가한 상태였다. 원영주 다음부터는 붓의 굵기를 달리 하여 남정주부터 역대 지방관을 수록하였다. 남정주는 1793년지 작성 당시의 지방관이였다. 『장흥지』는 원래 1793년지 원본에 별지를 붙여 1793년에 부임한 남정주부터 1816년 부임한 박승환까지 추기(追記)한 것으

32) 『승정원일기』 정조 12년(1788) 5월 9일 경오 “以沈鳳淳爲長興府使”; 정조 14년(1790) 2월 16일 정묘 “長興府使元永胄”

33) 『장흥부지』(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62-191-13) “正祖十三年己酉寫”, “崇禎紀元後三己酉十月日 府使沈候鳳淳 以餘件一卷 要爲替面之資 故藏之于家”

34) 『長興誌』(附 臨陂·泰仁, 일본 天理大學 今西文庫 2921-161, 이마니시필름 47필). 국립중앙도서관 『長興誌』(古2748-40)는 이 읍지의 복사본이며, 규장각의 『장흥부읍지』(규 17428)는 이 읍지를 배긴 후사본이다. 『호구총수』(1789)는 7,965호, 개인소장본은 7,983호, 이 읍지는 8,000호인 것을 보면, 1792년 임자년 호수인 듯하다.

로,³⁵⁾ 권두의 읍기방향·도리·지광을 비롯한 독특한 항목을 많이 개설하여 ‘예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의 『호남읍지』(1847) 제3-3책과 『호남읍지』(규12175, 1871) 제9-1책도 1793년지를 저본으로 하였으며, 판식은 각각 조연평이나 한치조까지 추가하였다.³⁶⁾ 그러나 이 두 읍지는 1793년지와 1832년지에 실려 있던 고적의 황보폐현과 누정의 세주 기록은 생략하였다. 역로 뒤의 환자[還上]·각사우·인물은 1832년지에만 보인다. 한편, 『호남읍지』(규12181, 1895) 제2-3책 장흥부와 『장흥군읍지』(규10805, 1899)는 항목 구성이 간단하다.³⁷⁾

지금까지 『장흥지』(1793) 등에서 확인한 것처럼 장흥부는 『호남읍지』 유형을 적용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이다. 1793년 장흥부에서 편찬한 읍지는 유형분류가 곤란한 ‘예외 유형’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전라도 55개 고을과 법성진까지 동일한 유형의 읍지를 편찬한 점을 고려하면, 장흥부에서도 『호남읍지』 유형의 읍지를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당시 장흥부에서 편찬한 『호남읍지』 유형의 완성본은 상송한 이후 초고본조차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호남읍지』 유형의 읍지가 계승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5. 『호남읍지』 유형의 의의

국립고궁박물관의 『읍지』(『각도읍지』) 전라도편과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의 34개 고을 읍지는 호구나 선생안 마지막 인물의 재임 기간이 동일하다. 1793년 전라감영에서는 감영 보관용과 중앙관서나 어람용 등 여러 건의 읍지를 제작하였다. 개인소장본은 1793년 이후 언젠가 전라감영에서 보관하고 있던 읍지들을 모아 재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장본에서 9개 고을이 다른 유형이고, 전라도 지방에서 전래된 점을 고려하면 감영 보관용으로 보인다. 개

35) 『승정원일기』 정조 14년(1790) 2월 16일 정묘 “長興府使元永胄”; 정조 17년(1793) 6월 15일 병자 “南正周爲長興府使”; 순조 16년(1816) 6월 13일 신유 “朴升煥爲長興府使”; 순조 16년(1816) 12월 22일 병신 “閔致成爲長興府使”

36) 『승정원일기』 헌종 11년(1845) 5월 3일 계해 “趙然明爲長興府使”; 『승정원일기』 고종 7년(1870) 6월 15일 경술 “韓致肇爲長興府使”

37) 『호남읍지』(규12181, 1895) ‘長興府地圖’, 建治沿革, 郡名, 官職, 疆界, 坊面, 山川, 土産, 形勝, 烽燧, 公廩, 樓臺, 祠廟, 學校, 進貢; 『장흥군읍지』(규10805, 1899) 長興郡地圖, 長興郡, 建置沿革, 郡名, 山川, 結摠, 民戶, 學校, 壇廟, 佛宇, 道路, 橋梁, 堤堰, 場市, 宦蹟, 人物.

인소장본에 비해 『각도읍지』 전라도 47개 고을 1개 진(법성진)의 읍지는 1793년 당시 중앙정부로 상송한 ‘완성본’이었다.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에서 분실한 6개 고을과 『호남읍지』 유형이 아니었던 7개 고을의 『호남읍지』 유형 1793년지는 『각도읍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각도읍지』에는 제주목·대정현·정의현·담양부·장성부·무주부·여산부 7개 고을의 1832년지가 실려 있는데,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에는 1793년에 편찬한 『호남읍지』 유형이 실려 있다. 따라서 전라도 56개 고을 가운데 1793년에 편찬한 『호남읍지』 유형 읍지는 모두 54개 고을이다.

경상도 안동부의 사족인 전라도 도사 권방은 전라도 각 고을에 1786년(정조 10)에 편찬한 『안동부여지지』를 바탕으로 일부 항목을 추가한 범례를 하달하며 규정대로 읍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안동부여지지』는 『여지도서』 경상도 편을 바탕으로 『여지도서』 보완유형의 수록항목을 반영한 특이한 유형이었다. 영광군·홍덕현·남평현·구례현·강진현·무장현·옥구현·운봉현·곡성현·진도군·낙안군·함평현 선생안의 마지막에 수록한 인물들은 1790년부터 1792년 사이에 부임한 인물들로 전라도 읍지 편찬 사업 당시의 지방관들이다.

한편, 개인소장본 전주부와 장흥부는 1793년 이전에 각각 『여지도서』 보완유형과 『여지도서』 증보유형의 읍지를 편찬한 사실을 보여준다. 『각도읍지』는 두 고을 모두 1832년지인데, 전주부는 『호남읍지』 유형이지만, 장흥부는 유형분류가 곤란한 ‘예외 유형’이다. 『각도읍지』를 보면, 전주부는 1793년 당시 『호남읍지』 유형 읍지를 편찬하였지만, 장흥부는 그러하지 못했다. 1793년 편찬한 이마니시문고의 『장흥지』는 『각도읍지』 장흥부에서 추가한 3개 항목을 제외하면 같은 내용이다. 현재로서는 1793년 당시 장흥부만 유일하게 『호남읍지』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소장본이나 『각도읍지』에 실린 『호남읍지』 유형의 읍지들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유형으로 편찬한 읍지들로 18세기 말 지역의 역사와 지리, 인물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다. 18세기 말 정조시기 전라도 각 고을이나, 전라도 전체를 연구하고자 할 때 기본이 되어야 할 자료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사, 지역학 연구로서 18세기 말 전라도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야 사료라 할 수 있다. ‘『호남읍지』(1793)’는 한 고을을 제외하고는 수록항목이 일치하므로 항목별 고을별로 비교해 보면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찬읍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알고자 한 지방이라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1899년 4월 대한제국 내부(內部)에서는 13도 관찰부에 훈령을 내려 각군의

지와 지도[誌與地圖]를 각 2건씩 정서하여 30일내로 빨리 올려 보내라는 읍지 수상령을 내렸다.³⁸⁾ 『전라북도각군읍지』는 전라북도 관찰부에서 상단에 전라 북도가 새겨진 붉은색 인찰지에 26개 군 읍지를 일정하게 필사한 것이다.³⁹⁾ 당시 홍덕군·무장군·고창군은 전라남도 소속이었다. 전라북도 관찰부에서 동일한 유형의 읍지를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은 1793년에 편찬한 『호남읍지』 유형의 읍지를 군별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전라북도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호남읍지』 유형 중에서 절반 정도는 생략하고 절반만 남기면서 관속(官屬)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지역사, 지역학을 연구하면서 인물 연구에 집중하여 몇몇 인물의 행적 소개에 그치거나 미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껏 간과되어온 다양한 인물들을 발굴하여야 한다.⁴⁰⁾ 『호남읍지』(1793)는 인명록이라 할 정도로 많은 수의 인물들을 수록하였다. 다양한 수록인물들을 고을별 시기별로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호남읍지』(1793)와 ‘창의록류’의 수록 인물을 상호 대조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창의록류 인물이나 읍지 수록 인물 중 서로 선택한 인물과 배제한 인물, 혹은 발굴한 인물로 구분하여 연구하면, 18세기 말 정조시기 전라도 지역 인물에 대한 평가, 정치 세력과 정치적 지향, 지역 정체성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1793년 읍지 편찬 사업을 전후하는 시기에 여러 종류의 창의록을 편찬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안방준이 지어 1626년(인조 4) 순천 송광사에서 간행한 목판본 『호남의록』과 『삼원기사(三冤記事)』에는 각각 16명

38) 『皇城新聞』 1899년 4월 26일(정대영, 2011, 「1899년 전국읍지상송령과 읍지편찬 연구」, 『서지학보』 38, 87쪽 재인용); 『日新』 己亥 三月 十七日 自內部 訓令于十三道 而各郡邑誌 以各其府 都聚修正 輸送本部 以爲乙覽 亦復存案 旨意奉承 茲以訓令 令到 卽地 轉飭管下各郡 誌與地圖各一件式 不日精書 令到後三十日內 趕速修呈也. 『日新』 권2, 182쪽; 1899년 음력 3월 17일은 양력 4월 26일에 해당한다.

39) 『전라북도각군읍지』(규10770) 수록항목을 『호남읍지』 유형 순서대로 파악해 보면, 地圖, ①建置沿革, ②郡名, ③官職, ④坊里, ⑤道路, ⑥城池, ⑦山川, ⑧姓氏, ⑩學校, ⑫壇廟, ⑬公廨, ⑭堤堰, ⑮場市, ⑯橋梁, ⑰驛院, ⑱寺刹, ⑲樓亭, ⑳物産, ㉑進貢, ㉒上納, ㉓戶口, ㉔田墾, ㉕俸廩, ㉖糶糴, ㉗軍器, ㉘古蹟, 官屬 순이다. 권두의 목록에는 ㉗진공이 없으나, ㉗進貢은 대부분의 군에서 수록한 항목이다. 『호남읍지』 유형 수록 항목 중에서 ⑨풍속, ⑪서원, ⑭관애, ⑮진보, ⑮봉수, ㉑목장, ㉒형승, ㉓도서, ㉔전세, ㉕대동, ㉖군세, ㉗요역, ㉘창고, ㉙군기, ㉚군액, ㉛노비, ㉜선생안, ㉝인물, ㉞과환(문과·무과·음사·생진·행의), ㉟책판을 생략하였다.

40) 김동수, 1998, 「전남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 55쪽.

과 3명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의 행적을 기록하였다.⁴¹⁾ 1760년 영광의 유립들이 중심이 된 『호남모의록』에는 이괄의 난 때 호남유립 192명이 모의한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광산거의록』(1760)에는 정묘호란 때 30명의 광주 유생들이 거의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호남병자창의록』(1762)에는 106명, 『병자창의록』(1779)에는 안방준의 의진활동을 중심으로 한 198명, 『정묘거의록』(1798)에는 71명, 『남문창의록』(1799)에는 임진왜란 당시 장성 남문에서 창의한 67명을 수록하였다.⁴²⁾ 목판으로 인쇄한 『호남절의록』(1799)에는 1,600여명의 호남인물을 수록하고 있는데, 임진왜란, 이괄의 난(1624),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 이인좌의 난(1728) 등과 을묘왜변(1555), 정사년 대야인 전투, 무오출병(1618)에서 거의한 인물들을 수록한 것이다.⁴³⁾ 1798년 정조의 명으로 편찬한 『영남인물고』보다 많은 수치이며, 유일필사본인 『영남인물고』에 비하면 인쇄본이기 때문에 소장처가 여러 곳이었다.

6. 맺음말

영·정조대에는 전적의 정리와 함께 읍지를 통해 각 고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읍지의 표준양식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은 정조대로 끝난다. 이후 시기의 읍지에서는 『경상도읍지』(1832)를 제외하면, 읍지의 표준양식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읍지에 편찬 당시의 지리나 인물 정보 등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인식이 부족했다. 그것은 읍지를 통해 중앙정부가 파악하고자 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데도 원인이 있었다. 그리하여 고을에 따라서는 이전에 편찬한 읍지를 그대로 베끼거나, 호구나 선생안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정도였다.

1793년(정조 17) 전라감영에서는 ‘영남규모’에 따라 『호남읍지』 유형을 개발하여 정해진 형식대로 읍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영남규모는 1786년(정조 10) 경상도 읍지 편찬 사업에서 적용한 전형적인 『여지도서』 보완유형이나 『여지도서』 증보유형이 아니었다. 전라감영에서 읍지 표준양식으로 참고한 것은 『안동부여지지』였다. 『안동부여지지』는 『여지도서』 경상도편을 바탕으로 『여지도서』 보완유형의 수록항목을 반영한 특이한 유형으로 『여지도서』 보완

41) 안방준 원저, 신해진 역주, 2013, 머리말, 『호남의록 삼원기사』, 역락.

42) 김동수, 2011,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31쪽.

43) 김동수, 2011, 앞의 논문, 31쪽; 김동수 교감 역주, 2010,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변형이라 할 수 있다.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읍지』(『각도읍지』)에서는 전라도 56개 고을 가운데 54개 고을에서 1793년에 편찬한 『호남읍지』 유형이 확인되지만 인찰지나 지도가 동일하지는 않다. 『각도읍지』 전라도편은 중앙관 서용(혹은 어람용)으로 상송한 동일한 시기의 읍지이며, 개인소장본은 전라감영에서 각 고을별로 1종씩의 읍지를 재필사한 것이다.

전주부와 장흥부는 1793년의 읍지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전주부는 1832년 편찬한 완산지가 『각도읍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호남읍지』 유형인 것을 보면 1793년에 편찬한 읍지도 『호남읍지』 유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도읍지』 장흥부(1832)는 유형 분류가 곤란한 ‘예외 유형’이다. 1793년 편찬한 이마니시문고의 『장흥지』의 권말에 3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1793년 당시 장흥부만 유일하게 『호남읍지』 유형의 수록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장흥부에서도 『호남읍지』 유형의 읍지를 편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1793년 편찬한 전라도 각 고을의 읍지는 18세기 말 정조시기 전라도 각 고을이나, 전라도 전체를 연구하고자 할 때 기본이 되어야 할 자료이다. 한 고을을 제외하고는 수록항목이 일치하므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리라 생각한다.

논문접수일: 2021. 04. 08. / 심사개시일: 2021. 05. 18. / 게재확정일: 2021. 06. 08.

참고문헌

1. 자료(인터넷 DB 포함)

- 개인소장본 : 『호남읍지』(복사본 : 전북대 도서관 E63798 동 951.98 호남읍 v.1-11, 충남대 도서관 구봉 951.98 호211 v.1-10).
-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kostma.korea.ac.kr) : 『호남읍지』(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한14-52).
- 국립고궁박물관(www.gogung.go.kr) : 『읍지』(고궁2798) 전라도편(제25책~제36책)
-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 『광산읍지』(古2746-2-166), 『대전통편』, 『대전회통』
- 국사편찬위원회 : 『승정원일기』(sjw.history.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kyujanggak.snu.ac.kr/ geo) 『동북현읍지』(규17432), 『완산지』(규12271), 『전라북도각군읍지』(규10770), 『진안현읍지』(규17406), 『해남읍지』(상백고915.14-H118, 옥과·남평·화순·창평 합철), 『호구총수』(규1602), 『호남읍지』(규12175), 『호남읍지』(규12181).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 『영암군읍지』(B16BB-0028a)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library.yonsei.ac.kr/) : ‘今西博士蒐集 朝鮮史原本コレクション(東京 雄松堂書店, 1968, 원소장처 일본 덴리대학 덴리도서관 이마니시문고) 『안동부여지』(25필), 『장흥지』(47필).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https://iss.ndl.go.jp) : 『嶺南邑志』(217-1).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학림선생속집』.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http://jsg.aks.ac.kr) : 『이재난고』, 『호남읍지』(K2-4336).

2. 단행본

- 김동수 역주, 2010,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 배우성, 2015, 『독서와 지식의 풍경』, 돌베개.
- 설석규 외, 2005, 『증보경상도선생안 상』, 한국국학진흥원.
- 안방준 원저, 신해진 역주, 2013, 『호남의록 삼원기사』, 역락.

이의강 외 역, 2020, 『여산·함열·용안읍지』, 익산시.

이희권 역, 2009, 『완역 완산지』, 전주문화원.

越智喩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3. 연구논문

김동수, 1998, 「전남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권, 41-58쪽.

김동수, 2011,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권, 31-104쪽.

박미선, 2019, 「시·군지 편찬 현황과 구성상의 특징-2000년 이후 전라남도 시·군지를 중심으로」, 『호남학』 65호, 183-215쪽.

송양섭, 2008, 「『부역실총』에 나타난 재원파악 방식과 재정정책」, 『역사와 현실』 70호, 27-56쪽.

송양섭, 2011, 「正祖代 『軍國總目』의 체제와 군비·군사재정의 파악」, 『사람』 38권, 71-103쪽.

이재두, 2018, 「1793년 『호남읍지』의 편찬과 그 의미」, 『한국문화』 84권, 255-288쪽.

이재두, 2019, 「1786년 편찬한 이마니시문고 『경상도읍지』의 분석과 그 의미」, 『동방학지』 188호, 69-106쪽.

이재두, 2020a, 「정조대의 전국읍지 편찬 사업 재검토」, 『한국사연구』 189집, 111-154쪽.

이재두, 2020b, 「2011년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 『읍지』 74책의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4호, 377-410쪽.

정대영, 2011, 「1899년 전국읍지상송령과 읍지편찬 연구」, 『서지학보』 38호, 77-113쪽.

<부표> 개인소장본 『호남읍지』와 『각도읍지』 수록 읍지의 권차와 편찬시기

*순서는 『대전통편』(1785) 이전 외관직 전라도의 고을별 순서임

연 번	고을	『호남읍지』		『각도읍지』		연 번	고을	『호남읍지』		『각도읍지』	
		권차	편찬 시기	권차	편찬 시기			권차	편찬 시기	권차	편찬 시기
1	전라감영	1-1	1788	27-1	1832	32	부안현	7-8	1793	34-1	1793
2	전주부	1-2	1788	27-2	1832	33	함평현	8-1	1793	35-6	1793
3	니주목	1-3	1790	31-1	1793	34	강진현	8-2	1793	29-3	1793
4	광주목	3-1	1790	31-2	1793	35	옥과현	8-3	1793	26-1	1793
5	능주목	3-2	1790	31-3	1793	36	고산현	8-4	1793	30-1	1793
6	남원부	2-1	1788	32-2	1793	37	태인현	8-5	1793	34-2	1793
7	장흥부	2-2	1788	33-1	1832	38	옥구현	8-6	1793	30-5	1793
8	순천부	2-3	1788	32-1	1793	39	남평현	8-7	1793	26-3	1793
9	담양부	4-2	1793	33-2	1832	40	홍덕현	9-1	1793	25-6	1793
10	여산부	5-2	1793	33-5	1832	41	정읍현	9-2	1793	34-3	1793
11	장성부	4-1	1793	33-3	1832	42	고창현	9-3	1793	35-5	1793
12	무주부	5-1	1793	33-4	1832	43	무장현	9-4	1793	30-2	1793
13	보성군	5-3	1793	35-3	1793	44	무안현	3-4	1790	35-7	1793
14	익산군	5-4	1793	25-4	1793	45	구례현	9-5	1793	26-5	1793
15	고부군	5-5	1793	34-5	1793	46	곡성현	9-6	1793	30-10	1793
16	영암군	5-6	1793	25-3	1793	47	운봉현	9-7	1793	30-6	1793
17	영광군	5-7	1793	25-1	1793	48	임실현	10-1	1793	30-8	1793
18	진도군	6-1	1793	34-6	1793	49	장수현	10-2	1793	30-9	1793
19	낙안군	6-2	1793	35-4	1793	50	진안현	10-3	1793	30-7	1793
20	순창군	6-3	1793	35-1	1793	51	동북현	10-4	1793	28-4	1793
21	금산군	6-4	1793	25-5	1793	52	화순현	10-5	1793	28-2	1793
22	진산현	6-5	1793	34-4	1793	53	홍양현	3-3	1790	29-2	1793
23	김제군	6-6	1793	35-2	1793	54	해남현	10-6	1793	29-4	1793
24	창평현	6-7	1793	26-10	1793	55	제주목	11-1	1793	26-1	1832
25	용담현	7-1	1793	26-9	1793	56	대정현	11-2	1793	26-2	1832
26	임피현	7-2	1793	26-6	1793	57	정의현	11-3	1793	26-3	1832
27	만경현	7-3	1793	26-8	1793	58	여수군			36-1	1899
28	금구현	7-4	1793	26-7	1793	59	지도군			36-2	1899
29	광양현	7-5	1793	29-1	1793	60	완도군			36-3	1899
30	용안현	7-6	1793	30-4	1793	61	돌산군			36-4	1899
31	함열현	7-7	1793	30-3	1793	62	법성진			25-2	1793

<부도> 전라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관련 자료

全羅道 觀察使一員 從二都事一員 從五 府尹一員 從二全州 觀察 牧使四員 從三羅州 濟州 光州 綾州 縣令	都護府使七員 從三南原 長興 順天 潭陽 礪山 郡守 從四寶城 益山 古阜 靈巖 靈 郡守十一員 從四寶城 益山 古阜 靈巖 靈 光珍島 樂安 淳昌 錦山 珍山 金堤 判官二員 從五全州 濟州 光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	---	---	---	---	---

부도 1. 『대전통편』(1785)

全羅道 觀察使一員 從二都事一員 從五 府尹一員 從二全州 觀察 牧使四員 從三羅州 濟州 光州 綾州 縣令	都護府使七員 從三南原 長興 順天 潭陽 礪山 郡守 從四寶城 益山 古阜 靈巖 靈 郡守十一員 從四寶城 益山 古阜 靈巖 靈 光珍島 樂安 淳昌 錦山 珍山 金堤 判官二員 從五全州 濟州 光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縣令五員 從五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	---	---	---	---	---

부도 2. 『대전회통』(1895년 지방 행정 개정 이전 기준)

湖南 長水 龍潭 興德 井邑 和順 谷城 湖南邑誌	湖南 長水 龍潭 興德 井邑 和順 谷城 湖南邑誌	全羅南道 一 等 二 等 三 等 光州 麗水 潭陽 靈巖 寶城 益山 古阜 靈巖 靈 全羅北道 一 等 二 等 三 等 金堤 錦山 珍山 金堤 錦山 珍山 金堤
--	--	--

부도 3. 칙령 제36호(1896. 8. 4, 관보 제397호 건양 원년 8월 6일), 『호남읍지』(규12181, 1895), 『호남읍지』(규12175, 1871)

부도 4. 대한제국 칙령 제49호 지방구역정리건
(1906. 9. 24, 官報 附錄 광무 10년 9월 28일) 별표 전라북도

부도 5. 대한제국 칙령 제49호 지방구역정리건
(1906. 9. 24, 官報 附錄 광무 10년 9월 28일) 별표 전라남도

[illegible]

부도 6. 越智諭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7~8쪽.

[illegible]

부도 7. 월지유철(오치 유시치), 앞의 책, 8~11쪽.

<Abstract>

The *Honam Eupji* Type Distributed in 1793 and Jeolla Province *Eupjis*

Lee, Jae-doo *

Kwon Bang(1740~1808), a vice-governor of Jeolla Province, carried out a project to compile eupjis(邑誌, local gazetteers) in the Jeolla region in 1793(Jeongjo 17). At that time, Jeollaegamyeong was required to compile eupjis according to a certain standard form. In Jeolla Gamyeong, a *Honam Eupji* type was developed based on the *Andongbu-Yeojiji*, which was compiled in 1786(Jeongjo 10), and Each county in Jeolla-do was required to compile eupjis in the prescribed format.

Looking at the personal collection *Honam Eupji* and *Eupji*, which is kept by the National Palace Museum, eupjis of the type of *Honam Eupji* in 54 out of 56 counties in Jeolla-do are identified. Jeollabamyeong produced eupjis for storing Gamyeong and sending them to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Except for some eupjis, the personal collection *Honam Eupji* and the *Gakdo Eupji* are the same kind of books compiled at the same time.

Jeonjubu and Changheungbu had no eupjis left in 1793. Jeonjubu was compiled in 1832, but the *Honam Eupji* type of eupji was compiled in reference to the *Gakdo Eupji* section. However, Jangheungbu is an ‘exceptional type’ in which the *Gakdo Eupji* section(1832) is difficult to categorize. It is the same as *Jangheungji* by Imanish Collection, which was compiled in 1793, except that the 1832 edition added three items at the end of the book. Therefore, it should be seen that the Jangheungbu did not compile the *Honam Eupji* type eupji in 1793.

Since the eupjis of each county in Jeolla Province, compiled in 1793, are identical except for one county, I think they will produce their own meaningful results by comparing them by category. This data should be the basis for the study of each county or entire Jeolla Province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 Yeungnam High School Teacher

in the late 18th century. Most of all, when trying to find the identity of Jeolla Province in the late 18th century as a study of local and regional studies, can be called data only if you look at it in detail.

Key Words : Eupji(邑誌, local gazetteer), *Gakdo Eupji*(『各道邑誌』),
Honam Eupji(『湖南邑誌』), *Honam Eupji type*(『湖南邑誌』類型),
Kwon Bang(權訪)